



광동제약, '주스밍 도르멍' 5기 활동 진행

광동제약이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청년 환경정화 프로젝트 '주스밍 도르멍' 5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내·외 청년 30명이 제주올레 길 걷기, 생태 탐방, 환경 정화 캠페인, 환경 전문가 멘토링 등에 동참했다.

/광동제약



BGF리테일, 아동 안전 그림 공모전 시상식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함께 제5회 아동 안전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수상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BGF리테일



KB국민은행-교통은행, 中 국가 결제망 연계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위안화 직거래 시장 및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11주년 컨퍼런스'에서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과 중국 국가 결제망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왼쪽부터) 황위신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대표, 투홍 교통은행 업무총감, 송병철 KB국민은행 디지털영업그룹 부행장, 김동주 KB국민은행 국민지갑Unit(P) 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토스뱅크에 아제르바이잔 은행협회 대표단 방문

토스뱅크는 지난달 28일 아제르바이잔 은행협회 대표단 측이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 이후 보여온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고객 중심 설계와 기술 기반 리스크 관리, 금융소외계층 접근성 확대가 주요 경험으로 공유됐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왼쪽)가 자카르 누리예프 아제르바이잔 은행협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토스뱅크



BNK부산은행,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나서

BNK부산은행은 부산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왼쪽 네번째부터),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기업소식·피플

한화갤러리아 '육아동행지원금' 수혜 200가정 돌파

사내 출산가정에 1000만원 지원
유통·기계 부문 계열사 13곳 도입

한화갤러리아는 한화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에서 시행 중인 '육아동행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내 가구가 11월 기준 200가정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00가정을 넘어선지 불과 4개월 만에 수혜 직원 수가 배로 늘어났다.

한화 육아동행지원금은 사내 출산 가정에 횟수상관없이 1000만원(세후 기준)을 지원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 가정은 신생아 수에 맞춰 지급한다.

이제도는 올해 1월부터 유통 서비스 부문과 기계 부문 소속 계열사 13곳이 도입했다. 당초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두 곳에서 한화비전, 아워홈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수혜 인원은 아워홈(60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43명), 한화세미텍(23명), 한화갤러리아(21명), 한화



한화갤러리아 정호진 과장(왼쪽)과 아내, 두 딸이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워홈 창원영업팀 박경민 조리장의 쌍둥이들이 쌍둥이 전용 유모차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비전(18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화갤러리아 정호진 과장은 최근 둘째 딸이 태어나 카시트 구입 등에 육아동행지원금을 사용했다. 일부는 아이들 교육비로 쓸 계획이다. 첫째가 태어날 당시엔 없었던 육아동행지원금이 가져다 준 긍정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아워홈 창원영업팀 박경민 조리장은 올여름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한번에 2000만원의 육아동행지원금을 받았다. 우선 아내 산후조리 비용 등

을 지출했고 남은 지원금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는 '지원금이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육아동행지원금이 추가 출산 고려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에도 응답자의 86%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과 업무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육아동행지원금을 수령한 100가구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는 '지원금이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육아동행지원금이 추가 출산 고려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에도 응답자의 86%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한화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은 앞으로도 육아동행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직원 동행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전자 'SKS', 美 빌트인 가전시장 공략

'찰스턴 푸드앤파인클래식'
가전브랜드 유일 후원사 참여

LG전자의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SKS'가 미국 미식 업계 전문가들과 접점을 넓히며 글로벌 빌트인 가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SKS가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찰스턴 푸드앤파인클래식'에 '빌트인 가전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 시연'을 진행 중인 모습.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열린 '찰스턴 푸드앤파인클래식'에서 'SKS'의 빌트인 가전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 시연을 진행 중인 모습.

이를 활용한 SKS 총괄 세프 닉 리치의 라이브 쿠킹쇼와 시식 행사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올해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SKS로 새단장하고,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키우고 있다.

'SKS 서울' 외에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상설 빌트인 가전 전시관을 운영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푸드앤파인클래식'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여 4000여 부스 방문객들에게 프리미엄 주방 가전 경험을 제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일터 어려움·도움 사례 공유

노사발전재단은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마실에서 '2025년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콘서트는 재단의 2025 안전이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의 어려움을 근로자자이음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

공하는 힐링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자자이음센터는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 계약 문제를 법적 다툼 없이 전문가 상담으로 사전에 조정한 사례, 계약상의 불이익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법적 상담 등 권리 보호 사례를 공유했다.

힐링콘서트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거장의 음악, 거장의 열정'을 주제로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고,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세븐일레븐, 전자영수증 문화확산 기여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표창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지난 1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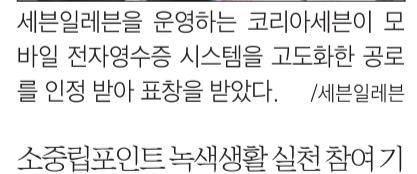
2025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은 전자 문서 관련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모바일 전자

영수증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1만 2000여 개 점포를 기반으로 전자영수증 이용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22년부터 탄

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참여 기업으로 등록해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주관 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 MOU에 편의점 업계 유일 파트너사로 참여해 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모바일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고도화한 공로를 인정 받아 표장을 받았다.

/세븐일레븐

HD현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억 기탁

연말 맞아 취약계층 지원

HD현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억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HD현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금 기탁과 함께 굴착기 및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임직원들의 급여 나눔으로 설립된 'HD현대 1% 나눔재단'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인사

◆ HLB그룹 ◇ 사장 전보 ▲ 대표이사 김홍철 ◇ 부사장 승진 ▲ 경영기획팀 김대용 ◇ 상무보 승진 ▲ 바이오링크팀 이지환 ◇ 상무보 전보 ▲ 재무전략본부 이상우

부음

▲ 이춘광씨 별세,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 코치)씨 부친상, 대구 북구 호국로 898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VIP 301호, 발인=4일 오전 6시30분, 053-324-4444